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훌륭한 시민으로 만드는가?*

박지선 · 최인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불가피하게 공포를 가져오고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처법을 사용한다. 그 중 하나가 공포 관리 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에서 주장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회적 소속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속한 문화의 규범을 충실히 따르는 훌륭한 시민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죽음의 공포를 해소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2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공포 관리 이론과 일치하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한 피험자들이 그렇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불공정한 상황을 더 불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연구 2에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유도하였을 경우 규범을 준수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이 증가하고, 규범을 어긴 행동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가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노장 사상에 노출된 피험자들은 비록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유도되었지만 이러한 행동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노장 사상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해석된다.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후속 연구가 논의되었다.

주제어: 죽음, 공포 관리 이론, 규범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죽음을 외면하려 하여도 일상생활의 많은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도록 만든다. 이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병원 영안실 방문, 간혹 마주치는 장례 차량의 행렬, 라디오나 텔레비전 뉴스에서 듣게 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소식, 그리고 신문에서 보게 되는 유명인사의 부고기사 등이 그러한 것들의 일부이다. 이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어있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자각하게 되고 이 현실 앞에서는 자신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의 행동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영안실을 방문하고 나올 때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평상시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를 것인가?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물음에 답하고자 수행되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유발되는 공포와 두려움은 너무나 위협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응 방식을 택하게 된다. 소수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막아줄 묘약을 찾으려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약이 개

* 논문의 저자들은 이 논문에 동일하게 공헌하였으며 저자는 철자순서에 따라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진행에서부터 작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 사회심리 연구실 모든 멤버에게 감사함을 드린다.

발될 미래까지 살아 남기 위해 스스로를 냉동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방식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의 선택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이지 않다. 대개의 경우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를 찾거나,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거나, 혹은 본 논문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처럼 '사회에서 더 올바른 사람'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가설은 공포 관리 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 Greenberg, Pyszczynski, & Solomon, 1986; Solomon, Greenberg, & Pyszczynski, 1991)에서 도출된 것으로, 이 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자각할 때 평소보다 더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

공포 관리 이론

공포 관리 이론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대처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terror'라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공포 관리 이론의 핵심 가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자기 보존을 위협하는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될 때 공포를 경험하고 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승인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해진다.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서 규정한 가치와 규범 체계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그 사회와 문화에서 인정을 받을 때, 비록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공포 관리 이론의 주장이다.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부터 격리를 의미하고 이 격리 가능성에서 공포를 느낀다면, 자신이 속한 사회적 관계에 더 소속감을 느끼도록 행동할 때 그 공포를 부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시민(a good citizen)'이 되는 것이 죽음으로 인한 공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포 관리 이론의 이 가정은 Ernest Becker(1962, 1973, 1975)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Rosenblatt, Greenberg,

Solomon, Pyszczynski, & Lyon, 1989). Becker(1962, 1973, 1975)에 따르면 정상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연약함과 죽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며, 이 깨달음은 엄청난 공포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는 문화적 불안 완충제(a cultural anxiety-buffer)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불안 완충제는 개인이 속한 문화적 맥락 안에서 스스로의 가치나 자존감을 성취했을 때 가능하다. 그 이유는 특정 문화는 그 문화적 가치 기준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문화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 구성원들에게 안전감을 제공해 준다. 첫째는 이 세상은 좋은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공정한 세상(just world)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고, 둘째는 문화적 가치 기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의미 등으로 상징적 불멸성을 부여해 줌으로써 문화적 가치 기준을 지키는 사람들의 안전을 약속해 준다. 이렇게 문화적 가치 기준을 지키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를 자신이 속한 세상의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는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적 불안 완충제의 필요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 사람들은 공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적 가치 기준에 더욱 집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공포 관리 이론의 핵심 예언이다.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공포 관리 이론의 핵심 예언, 즉 피험자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면 피험자들이 스스로의 문화적 가치관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라는 예언이 입증되어 왔다. 예를 들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유도하였을 때 피험자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타났다.

-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호감이 증가하고 이를 위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감이 증가하였다(Greenberg, Simon, Pyszczynski, Solomon, & Chatel, 1992)
- 최소 집단 상황(minimal group setting)에서 내집단 편향이 증가하였다(Harmon-Jones, Greenberg, Solomon, & Simon, 1996)

- 도덕률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공격성이 증가하였다(McGregor, Lieberman, Greenberg, Solomon, Arndt, Simon, & Pyszczynski, 1998)
- 사회에서 용인되는 고정관념이 증가하였다(Schimmel, Pyszczynski, Greenberg, O'Mahen, & Arndt, 1999)
- 사회의 관습을 깨는 창조적 발상을 표현하게 했을 때 강한 죄책감을 느꼈다(Arndt, Greenberg, Solomon, Pyszczynski, & Schimmel, 1999)

공포 관리 이론의 문화 보편성

죽음의 문제는 특정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일 수 없다. 죽음은 시대와 문화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그로 인한 공포 또한 보편적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문화에 속하였든지 간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려는 그러한 심리적 노력들 또한 문화간에 보편적인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포 관리 이론의 예언, 즉 사회적 자기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예언이 과연 문화 보편적인 것일까? 이 물음은 지금까지 심각하게 제기된 적이 없었고 대부분의 연구들도 서양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이스라엘인(Florian & Mikulincer, 1997), 캐나다인(Baldwin & Wesley, 1996), 독일인(Ochsmann & Reichelt, 1994), 그리고 네덜란드인(Dechesne, Greenberg, Arndt, & Schimmel, 1998)을 대상으로 공포 관리 이론의 연구가 실시되었다.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 관리 이론에서 예언하는 것과 같은 대처 방법이 동양 문화에서 똑같이 적용되리라는 결론을 경험적 연구의 뒷받침 없이 내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 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에 비해 개인적인 자기(personal self)를 강하게 소유하고 있으나 동양인들은 사회적 자기(social self)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Markus & Kitayama, 1991).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기 정체성은 동양인들에게는 만성적으로(chronically) 중요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서양인들에

게는 그렇지 않다(Cousins, 1989; Rhee, Uleman, Lee, & Roman, 1995; Triandis, McCusker, & Hui, 1990). 따라서 서양인들의 경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할 때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동양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사회적 정체성이 항상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의식적인 노력을 상대적으로 덜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정체성을 일부러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동양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포 관리 이론의 예언의 근거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의 자존감(self-esteem)에 의해 완화된다는 가정이 존재한다. 이는 자존감의 존재 이유에 대한 Mark Leary의 사회 계기판(sociometer)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Leary, 1990; Leary, Terdal, Tambor, & Downs, 1995).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회적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사회적 관계에서 배척되고 있지 않은지 등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존감이 바로 이런 계기판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성공하고 있을 때는 자존감이 높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자기 존중의 정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공 여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자동차 연료 계기판을 통해 연료의 양을 알 수 있듯이 주관적인 자존감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공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공포 관리 이론의 가정이다. 그러므로 훼손된 자존감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역으로 사회적 정체성을 강하게 추구하여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존감 혹은 자기 고양 동기(self-enhancement motivations)를 다룬 많은 비교 문화 연구에서 자존감의 강도가 동양인과 서양인에게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관은 Heine & Lehman, 1995; Markus & Kitayama, 1991을 참조). 이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면 자기를 고양하고, 자존감에 훼손이 왔을 때 이를 복구하려는 동기가 동양인

에게서 보다는 서양인에게 유독 강하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자존감을 핵심 축으로 하는 공포 관리 이론은 서양인의 행동을 특히 잘 기술하는 이론일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존감 또는 자기 고양 동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동양인들, 그리고 사회적 자기 정체성이 만성적으로 강한 그들에게도 과연 공포 관리 이론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여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동양인들에게서도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 - 공포 관리 이론이 입증된다면 이는 비단 한 이론의 문화 보편성을 증명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한국인들이 죽음을 이해하고 그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취하는 심리적 전략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포 관리 이론의 문화 보편성에 대하여 어떤 사전(*a priori*) 예측도 내리지는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동양인을 대상으로 공포 관리 이론을 검증하는 첫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문화차이를 보여주든 혹은 문화 보편성을 지지하든 의미가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공포 관리 이론과 노장 사상

본 연구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동양 문화에 특수한 노장 사상이 공포 관리 이론의 예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 주변에서는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하였을 때 공포 관리 이론의 예언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겠다는 사람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즉 사회의 규범에 얽매이기 보다는 그것에 초연하겠다는 반응, 내집단을 편애하고 외집단을 차별하기 보다는 오히려 공정해지겠다는 반응, 사회 규범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기 보다는 관대하게 용서하겠다는 반응 등이 그 예이다(실제로 본 연구자들이 이 연구들 시작하게 된 동기도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반응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노장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장 사상은 삶과 죽음을 동일시하며 죽음에 대하여 공포와 두려움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에 초연할 것을 주장한다. 노장 사상의 이러한 주장은 아래에 인용되어 있는 장자의 일화에 잘 나타나 있다.

장자의 아내가 죽자 혜자가 문상을 갔다. 마침 장자는 두 다리를 뺀고 앉아서 그릇을 두들기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혜자가 말했다.

“그대는 평생 아내와 함께 자식을 키우면서 늙어왔네. 아내가 죽었는데 곡(哭)을 하지 않는 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릇을 두드리며 노래까지 부른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장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네. 처음 아내가 죽었을 때 어찌 나라고 슬프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 시초를 살펴 보니 원래 생(生)이란 게 없었네. 비단 생(生)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형상도 없었던 것이며, 비단 형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기운도 없었던 것일세. 그저 흐릿하고 유현한 가운데 섞여 있다가 변해서 기운이 있었고, 기운이 변해서 형상이 있었고, 형상이 변해서 생이 있었던 것일세. 이제 다시 변해서 죽음으로 갔으니, 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변갈아 운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 아내는 지금 천지라는 거대한 방에 편안히 누워있네. 그런데도 내가 큰 소리로 격격 운다면, 내 스스로 자연의 운명을 모르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울기를 그친 것일세.” (장자 외편 제 18장 <지락>)

만일 죽음에 대해서 위와 같은 생각을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혹은 이러한 생각에 순간적이지만 노출이 된다면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유발되는 공포가 감소될 것이며 따라서 공포 관리 이론이 예언하는 사회적 소속감 강화라는 대처방식도 불필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유도하기 전에 노장 사상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죽음에 대한 생각 → 사회적 소속감 강화”의 연결 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은 연구 2에서 검증될 것이다.

연구 1

사회적 소속감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포 관리 이론의 예언대로라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을 잘 지키게 될 것이다. 문화적 규범들 가운데 강력한 것들 중 하나는 공정성(fairness) 규범이다.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화적 규범과 가치가 훼손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수정하기 위해 행동한다(Lind & Tyler, 1988).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를 공정하다고 믿으려 하며(Just world hypothesis, Lerner, 1980), 또한 자신 스스로도 공정하다고 믿는다. 이 믿음은 바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소속감의 주요한 기반이 된다(van den Bos & Miedema, 2000). 따라서 자신의 사회적 소속감을 확인하고 강화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공정성 규범을 강하게 따르게 된다(van den Bos, Wilke, & Lind, 1998). 따라서 이 연구 결과들을 공포 관리 이론과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유도하면 사람들은 공정성을 추구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사회적 소속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려고 한다.” 연구 1은 바로 이 추론을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방 법

피험자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58명(남자 29명; 여자 29명)의 학생들이 부분 학점 이수를 위해 실험에 참가하였다. 58명의 피험자들은 무선적으로 29명씩 각각 죽음 생각 집단과 통제 집단에 할당되었다.

절차

죽음 생각 조건의 피험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실험자는 본 실험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피험자들에게 기존의 실험에서 사용한 방법대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의 육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3-5분 정도로 자유롭게 쓰도록 했다(Armdt et al., 1999; Greenberg, Pyszczynski, Solomon, Rosenblatt, Veeder, Kirkland, & Lyon, 1990; Harmon-Jones, Simon, Greenberg, Pyszczynski, Solomon, & McGregor, 1997; McGregor et al., 1998; Rosenblatt et al., 1989). 지시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적어주십시오. 당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당신의 육체는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피험자들이 에세이를 작성하고 난 후에 실험 조작이 끝난 후 피험자들의 정서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PANAS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Watson, Clark, & Tellegen, 1988)를 실시하였다. PANAS는 특정 순간에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서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긍정적 정서 10개(흥미 있다, 예민해져 있다, 흥분되었다, 고무되었다, 강하다, 단호하다, 주의가 집중되어 있다, 열광적이다, 활기 있다, 자랑스럽다)와 부정적 정서 10개(짜증난다, 괴롭다, 수치스럽다, 기분 나쁘다, 긴장했다, 죄책감 든다, 무섭다, 적대적이다, 신경질 난다, 두렵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정서에 대하여 피험자가 현재 이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5: 전적으로 그렇다).

본 연구의 가설과 관련된 종속 변인의 측정은 PANAS를 끝낸 후 이루어졌다. 피험자들은 공정성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해 놓은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질문지를 제공받았다. 제시된 시나리오는 총 5개였는데, 각각 직장 승진 시험에서 불공정하게 탈락된 경우, 대학의 한 강의에서 학점 분배에 대해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내신성적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 학급 반장 선거에서 불공정하게 선출이 취소된 경우, 마지막으로 장학금을 공정하게 수혜 받지 못한 경우이었다(각 시나리오는 부록1에 제시되었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각각 3개의 종속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첫째는 상황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것이었고(이 상황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 전혀 공정하지 않다; 7 -- 매우 공정하다), 둘째는 그 상황에서 경험할 화를 측정하는 것이었고(당신이 이 상황에 처했다면 당신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1 -- 전혀 화가 나지 않을 것이다; 7 -- 매우 화가 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당신이 이 상황에 처했다면 당신은 얼마나 불만족스럽겠습니까?; 1 -- 매우

우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7 -- 매우 만족스러울 것이다).
구체적인 시나리오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곧 승진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신은 영어 학원에 다니고 근무 실적을 향상시키는 등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보다 근무 실적이 낮은 당신의 입사 동기가 당신을 제치고 승진이 되었습니다. 이를 의심스럽게 생각하던 당신은 당신의 입사 동기가 회사 고위직 간부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개의 상황에 대한 평가가 모두 끝난 후 피험자들은 실험에 대한 자세한 사후 설명을 제공받았다. 통제 조건의 피험자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에세이를 쓰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나머지는 실험 조건과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

결과 및 논의

정서 측정치 분석

공포 관리 이론의 예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사회적 소속감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이 부적 정서 자체에 의해 전적으로 매개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 만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가 사회적 정체성 추구의 직접적인 원인이자라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유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도(예를 들어, 슬픈 영화를 보게 하거나 우울한 음악을 들려주는 것) 사회적 소속감 추구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포 관리 이론이 타당하다면 부적 정서 자체가 아닌 죽음에 대한 생각 유도 조작이 사회적 정체성 강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점은 이전의 많은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되었다(Arndt et al., 1999; Harmon-Jones et al., 1997; van den Bos & Miedema, 2000).

본 연구에서도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한 조건의 피험자들과 통제 조건의 피험자들간의 정서에서, 특히 일반적인 부정적 정서의 경험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며, 설사 부정적인 정서 경험에서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차이가 종속 측정치에서의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PANAS상에서

의 긍정적 정서의 점수와 부정적 정서 점수의 차이를 계산하여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서 두 조건간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 지표의 점수가 클수록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언과 일치하게 죽음 생각 조건과 통제 조건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54)=1.48, p>.20$ (죽음 생각 조건, $M=0.44$ VS 통제 조건, $M=0.66$).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따로 분석하였을 때도 두 조건간의 차이는 각각 유의미하지 않았다(긍정 정서, $F(1, 54)=0.36, p>.50$ VS 부정 정서, $F(1, 54)=4.19, p>.05$). 또한 성별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54)=0.34, p>.50$ (남성, $M=0.61$ VS 여성, $M=0.49$).

공정성 평가

연구 1의 예언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더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그 상황에 대해 더욱 화를 내며, 더욱 불만족스러워 할 것이다”이었다. 사용한 3개의 종속 측정치에 대한 반응들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즉, 상황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화를 많이 내고, 불만족스러워 함, $a=.89$), 세 종속 측정치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값을 합하여 하나의 불공정성 지표로 만들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 평정치 분석에서 이미 조건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보였지만, 여기에 더해 정서에 의한 종속 변인의 설명을 확실히 배제하기 위하여 모든 분석은 정서 평정치를 통제 한 후 이루어졌다. 실험 조작과 각 시나리오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F < 1$), 이후 분석은 각 시나리오에 대한 반응치의 평균값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공포 관리 이론의 예언과 일치하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작한 것의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52)=11.79, p<.001$ (그림 1). 그림 1이 보여주듯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제시된 상황들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지각했으며, 이에 대해 더욱 화를 많이 내고, 이를 더욱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였다.

이 결과는 사용된 모든 시나리오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각 시나리오에 대한 불공정성 평균 점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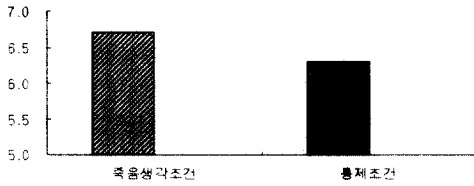


그림 1. 죽음 생각 조건과 통제 조건에서의 불공정성 지각 정도

표 1. 시나리오별 불공정성 평균치(괄호 안은 표준편차)

시나리오	불공정성지표	
	죽음생각조건	통제조건
1. 승진시험탈락	6.89(0.24)	6.67(0.50)
2. 학점분배불만	6.23(0.81)	5.29(1.17)
3. 내신 불이익	6.99(0.62)	6.76(0.56)
4. 반장선출취소	6.60(0.78)	6.31(0.70)
5. 장학금불이익	6.80(0.36)	6.45(0.67)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흥미롭게도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52)=4.88, p<.05$. 즉 여성들이 남성보다 제시된 상황에 대한 불공정성을 더 크게 지각하였다 (여성: $M=6.63$, VS 남성: $M=6.37$).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별과 실험 조작과의 상호 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F < 1$. 즉 성별의 주효과가 있었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작한 것의 효과는 남자 피험자에게서나($t(29)=3.41, p<.01$) 여자 피험자에게서($t(29)=2.06, p<.05$) 모두 발견되었다.

연구 1의 자료 분석 결과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유도하면 불공정한 상황에 대하여 그 상황을 더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죽음 생각 조건의 피험자들은 통제 조건의 피험자들에 비하여 불공정한 상황들을 더 불공정하다고 인지적으로 판단하였고, 정서적으로 더 화를 내었으며, 결국 그 상황에 대하여 더 불만족스러워 하였다. 이 결과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문화적 가치나 규범을 더욱 수호하려고 하며, 이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그야말로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 1은 또한 죽음 앞에서 정의로워지는 경향성이 한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공포 관리 이

론이 동양 문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소한 공정성 지각에 대한 문제에서만큼은 한국인들도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였을 때 공정성을 더 추구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연구 2

연구 1의 결과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유도하는 것이 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행동에 대하여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함을 보여준다. 사회 규범을 어기는 행위를 비난함으로써 사회적 소속성이 강화된다는 공포관리 이론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소속성의 강화는 사회 규범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비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규범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행위에 대한 긍정적 평가(칭찬)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도덕, 예절,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비난하는 것과 이들을 지키는 행위를 칭찬하는 것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규범을 준수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이는 연구 1의 개념적 반복 검증(a conceptual replication)이 될 것이다.

연구 2의 두 번째 목적은 연구 1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유도되었을 때, 사회 규범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인지적 정서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적으로 처벌하려 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1의 결과가 시사하듯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의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사회적 소속감을 강화하게 한다면 이 규범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연구 2의 마지막 목적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사회적 소속감 강화라는 연결 고리를 조절하는데 노장 사상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노장 사상은 도가와 도교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사상의 핵심은 자연에 따름으로써 천지만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노장 사상은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삼국 시대 이래로 유교, 불교와 함께 우리나라 전통 사

상 가운데 하나로 전송되어 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이강수, 1997). 노장 사상에 따르면 인간을 속박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죽음'과 '삶'의 문제인데, 이러한 이분법적 사유방식의 극단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에 초연할 수 있게 된다. 장자에 따르면 이 세계의 모든 현상은 원초적으로 자연이며,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현상까지도 모두 자연이다. 따라서 자연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삶과 죽음을 모두 자연으로 받아들이고 일체의 희로애락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원정근, 1997). 결국 죽음에 대한 생각이 유발하는 불안과 공포감을 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연구 2에서는 일부 피험자들을 노장 사상의 기본적인 생각에 노출되게 하고, 과연 그들의 행동이 노장 사상에 노출되지 않은 피험자들의 행동과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장 사상에 노출된 피험자들은 그렇지 않은 피험자들(죽음 생각 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덜 심하게 처벌할 것이며 규범을 준수한 행동에 대해서도 약하게 칭찬할 것이라 가설을 검증하려고 한다.

연구 2의 이 세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3집단(죽음 생각 조건, 죽음 생각 + 노장 사상 조건(이하 노장 사상 조건이라 칭함), 통제 조건)의 실험 조건이 사용되었다. 죽음 생각 조건과 통제 조건은 연구 1에서 사용된 동일한 절차로 구성되었다. 노장 사상 조건의 피험자들에게는 죽음 생각 유도 조작과 함께 노장 사상에 노출시키는 조작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피험자들에게 규범을 어긴 행위와 규범을 준수한 행위들을 제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와 준수 행동에 대한 칭찬의 정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죽음 생각 조건과 통제 조건을 비교하였을 때, 죽음 생각 조건의 피험자들이 통제 조건의 피험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위반 행동을 더 강하게 처벌할 것이고 준수 행동은 더 강하게 칭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공포 관리 이론의 예언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장 사상 조건의 피험자들은 노장 사상에 노출됨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 경험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죽음 생각 조건의 피험자들이 보이는 행동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다.

방 법

피험자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132명(남자 62명; 여자 70 명)의 대학생들이 학점 이수를 위해 실험에 참가하였다.

절차

죽음 생각 조건($n=25$)의 피험자들은 기본적으로 연구 1의 죽음 생각 조건의 피험자들과 동일한 실험 절차를 따랐다. 즉 실험실에 도착하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상상하게 하고 자신이 죽으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이를 생각할 때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는지를 3-5분 정도 적게 하였다. 피험자에게 제시된 지시문은 연구 1의 것과 동일하였다. 에세이 작성이 끝나면 연구 1에서처럼 PANAS를 이용하여 당시의 정서 상태를 평정하였다. 정서 상태의 측정이 끝나면 연구 2의 주 종속적 측정이 이루어졌다. 피험자들에게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규범 준수 행동(예: "길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다", "지하철에서 남이 두고 내린 물건을 분실물 센터에 맡겼다")과 규범 위반 행위(예: "남의 집 우편물을 훔쳐 읽었다", "길바닥에 침을 뱉었다")들을 각각 8 가지씩 제시하였다(부록 2 참조). 규범 준수 행동에 대하여는 9점 척도상에서(1: 별로 칭찬 받을 일이 아니다, 9: 아주 칭찬 받을 만한 일이다) 각 행동이 얼마나 칭찬 받을 일인지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규범 위반 행동에 대하여는 각각의 행동이 얼마나 처벌 받을 만한 일인지를 역시 9점 척도상에서(1: 별로 처벌 받을 일이 아니다, 9: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평정하게 하였다. 이 행동들은 사전 예비 조사($n=20$)를 통하여 수집된 총 43개의 규범 준수와 규범 위반 행동들 가운데에서 연구 적절성을 고려하여 선택된 것들이었다.

통제 조건($n=29$)의 피험자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유도하는 조작을 받지 않고 곧바로 PANAS를 이용한 정서 측정을 하고 16개 행위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였다.

노장 사상 조건($n=78$)의 피험자들이 도착하면 본 연구가 죽음에 대한 연구임을 설명한 뒤에, 노장 사상에 서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10개의 문장

을 제시하고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굉장히 동의한다). 제시된 문장들은 다음과 같다.

- 죽고 사는 것은 한 번 갔다가 한 번 돌아오는 것일 뿐이다.
- 내 몸은 천지가 내게 맡겨 놓은 형상일 뿐, 내가 아니다.
- 삶을 받았으면 기쁘게 그 삶을 누리다가 죽을 때는 모든 것을 잊고 자연으로 복귀한다.
- 살 때는 편히 머물고 죽음이 와도 운명에 따른다면, 슬픔이나 즐거움이 파고들 수 없다.
- 삶은 죽음의 결과요 죽음은 삶의 시작이다.
- 삶과 죽음은 하나이다. 따라서 산다고 기뻐할 필요가 없고 죽어도 슬퍼할 필요가 없다.
- 삶은 하나의 커다란 꿈이다.
- 사물의 자연스러운 추이에 따라 삶과 죽음을 망각하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 죽음이 없으면 삶도 없다.
- 자연이 내게 삶을 주어 나를 수고롭게 하고, 또 죽음을 주어 나를 쉬게 하는 것이다.

이 평정 과정을 거치면서 피험자들이 노장 사상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각 문장에 대한 평정이 끝나면 죽음 생각 조건에서와 같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그에 대한 느낌을 에세이로 쓰도록 하고, PANAS를 실시한 뒤, 16개의 행동 각각에 대해서 이 행위가 얼마나 칭찬(혹은 처벌) 받을 만한지를 평가하였다. 16개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모두 끝난 후 피험자들은 사후 설명을 받고 돌아갔다.

결과 및 논의

정서 측정치 분석

연구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점수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 127)=1.20, p>.30$ (노장 사상 조건, $M=0.53$ VS 죽음 생각 조건, $M=0.64$ VS 통제 조건, $M=0.75$).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따로 분석하였을 때도 조건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긍정 정서, $F(2, 127)=0.04, p>.90$; 부정 정서, $F(2, 127)=1.80, p>.15$). 성별의 주효과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127)=0.88, p>.35$ (남성, $M=0.66$ VS 여성, $M=0.54$). 따라서 실험 조건들간에 종속 측정치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정서의 차이로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규범 준수 행동에 대한 칭찬

연구 2의 목적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의 유도가 규범 준수 행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칭찬)를 보일 것이라는 것과, 이 경향성은 그러나 노장 사상에 노출되었을 때는 약화될 것이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8개의 규범 준수 행동에 대한 칭찬 측정치를 평균하여 변량 분석을 시도하였다. 성별에 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는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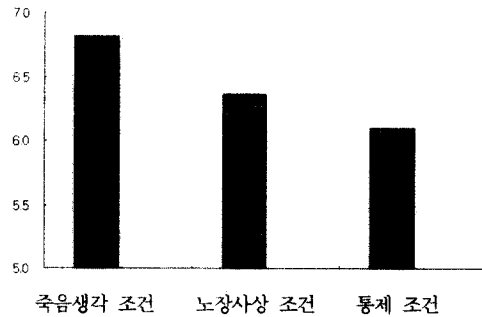


그림 2. 규범 준수 행동 칭찬치

예상과 일치하게 칭찬 평정치에서 세 조건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124)=4.22, p<.05$ (그림 2 참고). 가설과 일치하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난 피험자들은 그렇지 않은 피험자들에 비하여 사회의 규범을 지킨 행동들을 더 칭찬하였다(죽음 생각 조건: $M=6.81$ VS 통제 조건: $M=6.09$). 죽음 생각 조건과 통제 조건간의 이러한 차이는 Tukey 사후 검증 결과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역시 가설과 일치하게 노장 사상에 노출된 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피험자들은 그렇지 않고 곧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피험자들에 비하여 칭찬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약화되었다. 사후 검증 결과, 노장 사상 조건에서의 칭찬 평정치는 통제 조건의 칭

찬 평정치 수준으로 하락하여 노장 사상과 통제 두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30$ (노장 사상 조건, $M=6.36$, VS 통제 조건, $M=6.09$)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사회 규범을 깨뜨린 행위에 대한 처벌 정도에 있어서 조건간 측정치를 분석한 결과,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124)=5.70$, $p<.01$ (그림 3 참고). 마찬가지로 Tukey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우선 공포 관리 이론의 예언과 일치하게 죽음 생각 조건과 통제 조건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p<.01$. 즉 죽음 생각 조건의 피험자들이 통제 조건의 피험자들보다 규범 위반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평정하였다(죽음 생각 조건: $M=6.41$, VS 통제 조건: $M=5.38$). 공포 관리 이론의 주장처럼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난 후에는 자신의 사회적 소속감을 더 강화하려 하고 이는 사회 규범을 어기는 행위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노장 사상 조건과 죽음 생각 조건간의 차이가 유의미 하였다는 것이다, $p<.05$. 즉, 노장 사상에 먼저 노출되고 죽음을 생각한 피험자들이 노장 사상에 노출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한 피험자들에 비해 규범 위반 행위를 더 관대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죽음 생각 조건: $M=6.41$ VS 노장 사상 조건: $M=5.75$). 실제로 사후 검증 결과, 노장 사상 조건의 처벌 평정치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통제 조건의 평정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노장 사상 조건: $M=5.75$ VS 통제 조건: $M=5.38$),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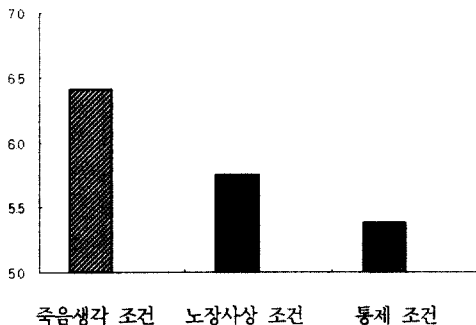


그림 3. 규범 위반 행동 처벌치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노장 사상을 수용하는 정도의 개인차와 종속 측정치들간의 상관성이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장 사상 조건의 피험자들은 노장 사상을 나타내는 문장들을 단순히 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각각의 문장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평정하였다. 따라서 노장 사상을 수용하는 정도와 규범 준수 행동에 대한 칭찬 평정치, 그리고 규범을 위반한 행동에 대한 처벌치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할 수 있었지만 각각의 상관계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노장 사상과 칭찬치: $r(78)=.17$, $p>.10$, 노장 사상과 처벌치: $r(78)=-.10$, $p>.30$). 이 결과는 노장 사상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는데 충분하였으며(노장 사상 노출 조작의 주효과), 노장 사상을 얼마나 수용하는지의 개인차는 이 주효과의 크기를 변화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장 사상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강하게 동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죽음에 대하여 초연할 것을 가르치는 노장 사상에 노출되지만 하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2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번째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유도하는 것이 규범을 위반한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연구1)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규범 준수 행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칭찬)로 나타난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규범 위반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으로 나타나 엄한 처벌을 유도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물론 피험자들로 하여금 직접 행동적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처벌 의도를 표현하게 하였기 때문에 연구 2의 종속 측정치는 행동이 아니라 여전히 평가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험실 장면에서 직접적인 처벌 행동을 측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의도 평정치를 처벌 행동의 근사치(proxy)로 보는 것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지금까지 공포 관리 이론에서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가설로서 노장 사상에 노출되는 것이 “죽음 → 사회적 소속감 강화”라는 연결 고리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자료 분석 결과 연구 2는 위의 3가지 목적을 모두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경우, 피험자들의 행동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 준다. 피험자들은 사회의 규범을 더 잘 준수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는 규범을 어긴 행위를 비난하고 처벌하며 반대로 규범을 준수하는 행위를 칭찬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실험실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작년에 일어난 미국 테러 사건 이후의 사람들의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9.11 미국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언론 매체들은 미국인의 생활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고한 적이 있다. 미국인들의 교회 출석률이 테러 이전 보다 증가하였고 사회에 자원 봉사하려는 태도가 증가하였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조선일보, 2001.11.01; 한겨레, 2001.12.31). 참혹한 테러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일으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봉사 의도가 증가하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몰입이 증가하였다고 공포 관리 이론에서는 해석한다. 교회 출석률이 증가한 것도 종교를 통한 상징적인 불멸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밝힌 결과 중 흥미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하여 비교적 초연할 것을 가르치는 노장 사상에 짧은 시간이나마 노출되는 것이 공포 관리 이론에서 예언하는 행동 패턴을 완화시켰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것으로서 여러 가지 후속 연구를 자극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노장 사상에 노출되는 것의 효과가 서양인에게서도 나타나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서양인들도 죽음에 초연할 것을 가르치는 노장 사상에 노출되면 본 연구의 피험자들처럼 “죽음 → 사회적 소속감 강화”라는 연결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결과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 문화를 대변하는 상징이나 신념의 의미는 그 문화원들의 표상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노장 사상을 나타내는 문장들에 잠시 노출되었을 때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상에 오랫동안 젖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노장 사상의 신념체계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서양인들이 그에 관한 몇 개

의 문장들을 접한다고 해서 그 사상의 의미가 머리 속에서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서 행동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노인(elderly people)에 관한 고정 관념을 활성화시켜 그것이 피험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된 Bargh 등의 연구(Bargh, Chen & Burrows, 1996)에서 점화 자극으로 사용된 단어 중 하나가 'Florida'이다. 미국 피험자들은 그들의 사회에서 Florida가 왜 노인들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은퇴한 노인들 중의 많은 수가 Florida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따라서 미국 피험자들에게는 Florida라는 단어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노인에 대한 고정 관념이 활성화될 수 있지만, 이러한 문화적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 피험자들에게는 Florida라는 단어에 노출되는 것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노장 사상을 나타내는 문장들에 노출시키는 것이 한국 피험자들에게 유발했던 효과를 서양 피험자들에게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두 번째로 가능한 후속 주제는 종교의 역할 일반에 관한 것이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 주는 것은 노장 사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소시켜 줄 것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유도하기 전에 특정 종교에 노출시키면 연구 2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실험실 전면에 피험자들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나 성모 마리아상 혹은 염주 등을 걸어 놓은 채,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쓰게 했을 때 노장 사상에 노출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중요한 후속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원정근(1997). *도기철학의 사유방식*. 서울: 법인문화사.
 이강수(1997). *노자와 장자*. 서울: 도서출판 길.
 장자(1969). *南華發覆 外篇, 雜篇*. 상해: 民國58.
 조선일보. 테러 이후 미국의 청소년 교육. 2001.11.01.
 한겨레. 도전받는 미국 세계질서 지각변동. 2001.12.31.
 Arndt, J., Greenberg, J., Solomon, S., Pyszczynski, T.,

- & Schimel, J. (1999). Creativity and terror management: Evidence that creative activity increases guilt and social projection following mortality sa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9-32.
- Baldwin, M.W., & Wesley, R. (1996). Effects of the existential anxiety and self-esteem on the perception of other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0*, 75-95.
- Bargh, J.A., Chen, M., & Burrows, L. (1996). Automaticity of social behavior: Direct effects of trait construct and stereotype activation on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230-244.
- Becker, E. (1962). *The birth and death of meaning*. New York: Free Press.
- Becker, E. (1973). *The denial of death*. New York: Free Press.
- Becker, E. (1975). *Escape from evil*. New York: Free Press.
- Cousins, S. D. (1989). Culture and self-perceptio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24-131.
- Dechesne, M., Greenberg, J., Arndt, J., & Schimel, J. (1998). Terror management and sports fan affiliation: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fan identification and optimis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Nijmegen, Nijmegen, the Netherlands.
- Florian, V., & Mikulincer, M. (1997). Fear of death and the judgment of social transgressions: A multi-dimensional test of terror managemen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369-380.
- Greenberg, J., Pyszczynski, T., & Solomon, S. (1986).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need for self-esteem: A terror management theory. In R. F. Baumeister (Ed.),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pp.189-212), New York: Springer-Verlag.
- Greenberg, J., Pyszczynski, T., Solomon, S., Rosenblatt, A., Veeder, M., Kirkland, S., & Lyon, D. (1990). Evidence for terror management theory II: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reactions to those who threaten or bolster the cultural world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308-318.
- Greenberg, J., Simon, L., Pyszczynski, T., Solomon, S., & Chatel, D. (1992). Terror management and tolerance: Does mortality salience always intensify negative reactions to others who threaten one's world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212-220.
- Harmon-Jones, E., Greenberg, J., Solomon, S., & Simon, L. (1996).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intergroup bias between minimal 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 781-785.
- Harmon-Jones, E., Simon, L., Greenberg, J., Pyszczynski, T., Solomon, S., & McGregor, H. (1997). Terror management theory and self-esteem: Evidence that increased self-esteem reduces mortality threa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4-36.
- Heine, S. J., & Lehman, D. 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Leary, M. R. (1990).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Social anxiety, jealousy, loneliness, depression,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221-229.
- Leary, M. R., Terdal, S. K., Tambor, E. S.,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Personality Process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18-531.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Plenum.

- Lind, E. A., & Tyler, T. R. (1988). *The social psychology of procedural justice*. New York: Plenum.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cGregor, H. A., Lieberman, J. D., Greenberg, J., Solomon, S., Arndt, J., Simon, L., & Pyszczynski, T. (1998). Terror management and aggression: Evidence that mortality salience motivates aggression against worldview-threatening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590-605.
- Ochsmann, R., & Reichelt, K. (1994). *Evaluation of moral and immoral behavior: Evidence for terror management theor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at Mainz, Mainz, Germany.
- Rhee, E., Uleman, J., Lee, H., & Roman, R. (1995). Spontaneous self-descriptions and ethnic identities in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42-152.
- Rosenblatt, A., Greenberg, J., Solomon, S., Pyszczynski, T., & Lyon, D. (1989). Evidence for terror management theory I: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reactions to those who violate or uphold cultur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81-690.
- Schimmel, J., Pyszczynski, T., Greenberg, J., O'Mahen, H., & Arndt, J. (1999). Running from the shadow: Psychological distancing from others to deny characteristics people fear in themselve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Arizona, Tucson.
- Solomon, S., Greenberg, J., & Pyszczynski, T. (1991). A terror management theory of social behavior: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self-esteem and cultural worldview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4, pp. 93-159). New York: Academic Press.
- Triandis, H. C., McCusker, C., & Hui, C. H. (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06-1020.
- van den Bos, K., & Miedema, J. (2000). Toward understanding why fairness matters: The influence of mortality salience on reactions to procedural fair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355-366.
- van den Bos, K., Wilke, H. A. M., & Lind, E. A. (1998). When do we need procedural fairness? The role of trust in author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449-1458.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부 록: 공정성 시나리오 (연구 1)

대학생인 당신은 친구와 교양과목 하나를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수업 시간에 거의 들어오지 않다가, 시험 때가 되자 당신에게 노트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과목은 출석체크를 하지 않고, 단 한번의 시험 성적으로 학점이 나오기 때문에 필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친구에게 노트를 빌려주었고, 후에 친구의 학점이 당신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당신은 그 동안 대내외적으로 미술 실력을 인정 받아왔습니다. 상대평가로 내신성적에 반영되어 대학입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실기시험을 위해 당신은 열심히 그림을 그려 제출하였으나, 점수는 이제껏 당신보다 훨씬 못한 평가를 받아왔던 다른 급우들보다도 낮았습니다. 나중에 당신은 급우들이 제출한 그림이 다른 전문가들이 대신 그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급 반장선거를 하였는데 당신이 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을 반장으로 선출하긴 곤란하다면서 다시 재선거를 할 것을 요구하셨고, 결국 다른 아이가 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당신보다 성적이 좋은 아이가 아니어서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던 당신은 후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학교 어머니 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인 당신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기에 충분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조교가 당신에게 당신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금을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가정형편도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은 장학금을 양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당신은 조교가 자기와 친한 후배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록 2: 규범 준수 행동/ 위반 행동 (연구 2)

1. 길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다.
2. 남의 집 우편물을 훔쳐 읽었다.
3. 길바닥에 침을 뱉었다.
4. 시험 볼 때 컨닝을 했다.
5. 지하철에서 남이 두고 내린 물건을 분실물 센터에 맡겼다.
6. 친구에게 상당량의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
7. 국경일에 국기를 달았다.
8.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쳤다.
9. 싫어하는 친구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
10. 휠체어를 타고 보도블럭을 올라가는 장애인을 도와주었다.
11. 장난전화를 했다.
12. 지나가는 선배에게 인사를 했다.
13.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다.
14. 지나가는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렸다.
15. 유리에 손을 베인 아이를 치료해 주었다.
16. 학교 기물을 파손했다.

Does Imagining One's Own Death Make an Individual “a Good Citizen”?

Jisun Park and Incheol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error management theory (TMT) states that imagining one's own death creates a sense of terror and that people cope with such an uncomfortable feeling by trying to become a good citizen. Two studies were conducted to test the hypotheses that imagining one's own death would cause individuals to blame norm-violating behaviors and to praise norm-observing behaviors more than usual. Study 1 found that, compared to control participants, participants who had imagined their own death regarded unjust situations as more unfair. Study 2 conceptually replicated the results of Study 1, such that those who had thought about their own death praised socially desirable behaviors more strongly than did those who had not thought about their own death. Interestingly, this pattern was moderated by an exposure to Taoism. When participants read some statements reflecting Taoist beliefs about life and death, they did not seem to experience a sense of terror faced with their own death and did not act in accordance with TMT.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death, terror management theory, norm

원고 접수: 2002년 1월 5일
심사 통과: 2002년 2월 1일